

[사회]



14년전과 확 달라진 광주체전

팸플릿서 인터넷·휴대폰 홍보로

봉사 동원 → 시민 서포터스만 17만

이번 '제88회 전국체전'은 지난 1993년 광주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체전'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을까?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각 시·도 임원진과 시민·공무원들은 지난 14년 세월의 간극(間隙)이 아닐로고에서 디지털 시대 바뀐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IT 시대에 걸맞게 민관(民官)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까지 유연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체전의 고질적인 병폐는 공무원을 강제동원, 타지역 선수·임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 하지만 올 체전은 최고령 김덕순(83·북구 두암동)을 등 17만여 명의 자발적인 시민 서포터스가 급수봉사·길 안내·응원 등에 나섰다.

광역시지자체가 주최하는 큰 행사에 기초단체가 '머리'를 내민 것도 큰 변화다. 동구청은 체전기간에 맞춰 '2007 총장로 축제'(9~14일)를 열고 있고 북구청은 '제18회 국화축제'(9~16일)를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팸플릿과 플래카드가 전부였던 홍보물은 이제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대신하고 있다. 경기장·경기 결과·문화 행사 등 관심사와 각종 정보는 체전 홈페이지(http://88sports.gwangju.go.kr)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광주시가 제작해 올린 체전 홍보영상(3분1초 분량)은 10일 현재 조회 수가 1천800여 회를 넘어

다. 국하은·임형규·조애림씨 등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UCC(User Created Contents)도 홍보와 판도라 TV 등에서 선공개 인기를 끄는 등 생방송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끄러운 경기장 분위기 속에서 장내방송을 통해 사람을 찾는 모습도 사라졌다. '빠빠'는 휴대전화로 대체됐고, 기념사진 등을 찍던 필름 사진기 자리엔 디카나 휴대전화 카메라가 들어섰다. 체전소식을 원고지에 빠삭히 적어 FAX로 본사에 송고하던 취재종교도 옛 추억으로 남았다.

VIP 경호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엄격히 통제되던 경기장은 이제 시민들의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개막식이 열린 광주 월드컵경기장 대형 스크린(가로 88m, 세로 23m)에선 영화 '화려한 휴가'가 무료 상영되고, 각 보조경기장 출입도 예전과 달리 자유스럽다.

지난 93년 체전 당시 바가지 상훈으로 외지인들의 인상을 구기게 했던 포장마차 대신, 반듯한 특산품·먹거리 코너가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이벤트 광장에 들어서 팔도 손님을 맞고 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고등학교 팀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응원. 고교팀들이 맞붙은 경기장 어디를 가든 학부모들이 막대풍선을 들고 "이겨라, 이겨라"를 외치는 풍경은 예와 다를 바 없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고3 학력평가’ 전국 1천759개 고교 3학년생 49만 명을 대상으로 10일 일제히 실시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각 학교로 보내지고 학생 개인에게는 영역별 등급과 영역별·과목별 점수,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영역조합별 백분위 성적, 문항별 채점표 등이 기재된 성적 자료가 제공된다.

광주 통신고=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올 수능 난이도 예년수준 유지”

한국교육평가원장 밝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과 관련, "이번 수능 난이도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경 평가원장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수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알수는 없지만 사실 학원에 못가고 학교 공부와 교육방송 강에 열중한 학생이 시험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에 대해 "2005년부터 '문제은행' 연구가 진행 중이고 모의 수능을 통해 일부 과목에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번 2008학년도 수능에는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또 "이번 수능부터 등급제(9등급)가 적용되는데 원점수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7명 민사고 합격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광주 3명, 전남 4명 등이 지역에서 7명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가 많은 것은 2008년 입학 전형부터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제 때문이다.

민사고 합격자 154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54명(35.1%)으로 가장 많고, 경기 45명(29.2%)이었다. 나머지 광역단체 출신 합격자는 1~7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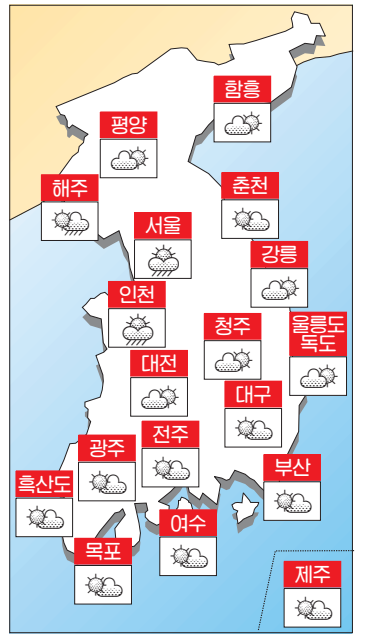
찬이슬 머금은 아침

10월 11일

(음 9월 1일) <전국날씨>

대체로 맑겠다.

광주	차차흐리겠음	12~22℃
전남	차차흐리겠음	13~22℃
전북	차차흐리겠음	17~24℃
충청	차차흐리겠음	13~24℃
경상	차차흐리겠음	12~23℃
강원	차차흐리겠음	10~24℃
제주	차차흐리겠음	10~24℃
서울	차차흐리겠음	13~26℃
부산	차차흐리겠음	11~23℃
대구	차차흐리겠음	11~23℃
대전	차차흐리겠음	12~22℃
인천	차차흐리겠음	10~22℃
안양	차차흐리겠음	16~19℃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1:58 썰물 < 07:18
 목포 밀물 < 14:17 썰물 < 19:36
 여수 밀물 < 09:06 썰물 < 02:50
 여수 밀물 < 21:14 썰물 < 15:06

▲해돋이 06:34 ▲해질 18:04 ▲달돋이 17: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씨						
최저/최고	12/22	11/21	10/21	9/20	9/20	10/18

“인권·비즈니스 관련법 등 실무교육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가 길러내야”

전남대 로스쿨 공청회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익인권과 비즈니스 관련법 등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실천형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10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로펌이나 기업 등과의 산학 연계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철 광주지법 목포지방법원 판사는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진호 변호사는 "광주는 민주평화인권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남대 로스쿨을 수료한 법률가는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변론 등 공익적이고 집

단적인 소송을 합리적으로 변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광주은행 준법감시팀 전종현 법학박사는 "기업 법무 전문가들이 로스쿨에 출강하는 등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YMCA 남부원 사무총장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를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법조인과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도록 공익적 법률지원활동의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대 법과대는 최근 로스쿨 인가에 대비해 김재승(조세법·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변호사·미국공인회계사), 안성포(상사법·단국대 교수), 최환주(형사법·인제대 교수), 김환주(민사법·변호사·사시 20회), 안진(공법·인권법·광신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씨 등 5명을 교수로 특별채용했다.

법의학의 권위자인 전남대 의대 박종태 교수, 여수 캠퍼스의 정훈 교수도 법학과에 합류했다.

광주통신기자 kps@kwangju.co.kr

■ 체전 특수... 업체별 희비

도시락·택시·광고·숙박업소 '웃고' 향토특산물판매점·의류업체 '울고'

'제88회 광주 전국체전'과 '2007 총장로 축제'가 한꺼번에 열리면 사업종종 한 번이 엮일거라고 있다. '체전·축제 특수'를 누리고 웃는 업종은 숙박업소를 비롯한 도시락 배달·택시·광고·술집·식당 등. 체전 참가자 3만여 명은 관광 호텔과 모텔 등 915곳에 머물고 있다.

이들 숙박업소는 이미 2주 전부터 16개 시·도체육회, 가맹점기 단체와 예약을 마쳐 남은 객실이 없다. 광주와 지척인 담양지역도 호황을 누리는 마한가지다.

광고업체들은 체전에만 ▲배너 191개(1억2천만원) ▲가로기 5천개(2천200만원) ▲선전판 9개(2천300만원) ▲애드벌룬 48개

(2천400만원)를 만들었다. 4만~8만원 상당의 플래카드도 체전 1천100여 개·총장로 축제 620개를 제작했다.

선수·임원들이 빠듯한 일정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 요식업체 10곳도 하루 1천~1만3천여 개(개당 5천원)의 도시락을 팔고 있다.

총장로 일대와 서구 상무지구 주점들도 반박 호황을 누리고 있다. 총장로 M 술집의 경우 축제 구경 나온 인파로 오후 6시만 되면 100여 석이 가득 찬다. 상무지구 P 술집도 체전 관계자들이 몰리면서 70여 개 좌석이 부족, 주점 앞에 5개의 간이 테이블을 설치했다.

오광명기자 kroh@kwangju.co.kr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료 80~100% 환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심 앞 전일빌딩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앞 전일빌딩 4F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기초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 224-4560, 232-1088 http://www.hda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강좌적중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검찰직, 보충직, 소방직, 전자직, 복지직, 토목직, 검정직, 들리화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

개강 : 11월 1일 주·야 (휴일)반 모집 (원격교육·실용)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반 미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상용,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립대 편입반 **역대, 한의대 편입반**

MEET/DEET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9088